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7년



헤이메즈 스프링의 단풍 사진:신광순 2017.10.22

## 내용 CONTENTS

- 한인회소식 | 한인 여러분께 | 문상귀 : 2
- 한인회소식 | 김치축제를 마치고 | 윤태자 : 3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 | 박영신 : 4
- 합창단 | 은혜의 강물따라 합창연주회 | 이태길 : 5
- 지역사회소식 | 코원소식박광종 : 5
-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 소식 : 6-10
- 수필 | 세기의 장관 | 이정길 : 11
- 칼럼 | 종교의 두 기둥 | 김기천 : 12
-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5 (서류미비자 세금번호) : 13
- 수필 | 주를 앙모하는 자 #3 | 김준호 : 15
- 기행문 | 알버커키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정해창 : 16
- 성경공부 시리즈 #7 | 에베소서 6장 | 현용규 : 19
- 생활상식 | 저렴한 비행 요금 찾기 : 20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1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2-23

알버커키 지역교민을 위한 **음악회**

겨울의 강물에서  
은혜의 강물 따라...



일시 : 2017.12.10.(일) 6:00 PM

장소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87113



지휘 이태길

revtedyi@gmail.com



341-0205 교회  
803-7716 Cell

반주 박영신

www.kumcabq.com

## 한인 여러분께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을 마감하는 광야 마감호로 인사드립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연중 가장 큰 김치 축제는 손님들과 함께 하는 행사였다면 12월 17일에 있을 '뉴멕시코 한인의 밤'은 교민들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민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뉴멕시코 한인의 밤(송구영신 파티)

2017년 12월 17일(일) 저녁 6시 장소: 이찌반 식당(Ichiban)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자원 봉사상 일반인 부문 시상식도 같이 합니다.

지나간 한인회 행사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김치 축제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관에서 교민들과 기관, 한인회 임원, 이사들이 단합하여 1년 중 가장



###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큰 행사인 김치 축제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350명가량의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2017 트럼프 대통령 자원봉사상 학생 부문 시상식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 KALA(Korean American Leaders Association)가 주최 2017 트럼프 대통령 자원봉사상 학생 부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학생과 내빈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뉴멕시코 문상귀 협회장이 수여했습니다. Sungjin Lee, Jooyoung Choi, Lisa Ko, Grace Lee, Jie Yoon Yu, Juwon Kim, Rebekah Jieun Han, Debora Mun, Junbeom Park, Hyelin Choi, Junseo Kim 이상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9명이 수상했습니다.



시장 후보에 오른 Dan Lewis 씨도 김치축제에 오셔서 한인회 여러분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 총영사배 호도 관광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

10월 14일 낮 12시 30분부터 UNM South Golf Course에서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상금은 챔피언 300불, 1등 200불, 2등 100불, 기타 최장타, 최근접 샷을 수여했습니다. 1등은 이재호, 조동훈 씨 2등은 김용환, 차진주 씨 3등은 문상귀, 고길영 씨 장타상에 이재호 씨, 근접 상에 문상귀 씨가 수상했고 이날 모인 기금은 어버이회 호도 관광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관련사진과 추가 기사 : 7페이지 참조)

## 추석맞이 노래자랑

10월 3일 한인회관에서 추석맞이 노래자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희정 예술분과위원장의 사회, 심사위원은 차성희 이사, 이영혜 재무분과위원장, 김미경 씨가 맡았습니다. 푸짐한 상품은 A-1 한국식품, 아리랑마켓, 김스마켓에서 후원했습니다. 최우수상에 이명길 목사님, 우수상에 조은순 어머니님, 인기상에 이경화 장로님 등 총 14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이경화 장로님은 선친 이원수 작가님의 시 <한가위 달>을 낭송해 주셨습니다. ■



사진설명:  
(위)  
유금님씨와  
이희정씨의  
듀엣

(아래)  
심사위원이  
된 차성희씨,  
이영혜씨와  
김미경씨

# 김치 축제를 마치고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수석 부회장



10회째의 김치 축제가 끝났습니다. 단 하루 몇 시간의 행사였지만 준비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고깃감을 사전에 주문하고 음식 종류를 정하고 어떤 김치를 어느 곳에 부탁하나 의논하고 텐트와 매트 등 필요한 장비 주문과 블라인드 설치 등 남자 임원들의 수고가 있었고 한글학교 학생들과 한인회 무용팀은 한 주일에 몇 번씩 모여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서로 도왔기에 이번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각 단체에서 후원해 주셨고 한국마켓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코원과 가톨릭공동체, 주님의 교회 감리교회에서 맡은 김치를 만들 때 한인회관에 모여 너의 일 나의 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한인회 행사를 위해 같이 일하고 이야기 나누며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축제 전 수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도움의 손길은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루하루 계획했던 일은 착오 없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김치를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텐트와 장비가 준비되고 사전에 400명 이상의 음식준비를 계획하고 마련하였기에 당일 분주한 가운데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들, 학부모들, 교인들, 어버이회 회원들, 한인회 임원들, 이사님들 개개인이 한인회의 행사를 자기 일같이 동참하여 솔선하여 도왔기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알리고 김치를 알리는 이 행사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차세대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해마다 더 나은 성과를 얻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후년에도 많은 교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태자 올림. ■

## 뉴멕시코 한인의 밤 (송구영신 파티)

2017년 12월 17일(일) 6pm

장소: 이찌반 식당 (Ichiban)

10701 Coors Blvd. NW

주최: 뉴멕시코한인회



## 한국학교소식

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2017년을 맞이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희 한국학교의 가을학기도 종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게 않도록 저희뉴멕시코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오늘도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학기의 꽃은 김치축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년에는 아동부에서 꼭두각시 춤을 준비하였고 올해는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김치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부에서는 꼭두각시 춤과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으로 자신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맘껏 펼쳤고 성인반에서는 k-pop에 맞추어 멋진 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로 그리는 그림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 함께 김치축제를 고대하며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이번 축제는 한국학교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에도, 작년에 이어 겨울방학을 맞아 캠프와 특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서는 '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이 함께 만든 역사 체험 키트' 100부를 저희 학교가 특별히 배정받게 되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정확한 일정과 주제는 논의 중이라 광야의 소리에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캠프와 특강은 준비에 있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캠프와 특강은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에서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특별한 교재가 함께 하니 더욱 더 특별하리라 기대하며 이곳에서 자라는 저희 차세대 자녀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사진

1. 김치축제 꼭두각시 공연
2.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
3. 한국학교 이다나선생 (중앙) 송별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가르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치축제에서 아동부 꼭두각시춤 공연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2018 SPRING (JANUARY - MAY)

### Want to learn Korean?

Don't miss out on a chance to meet different Korean-American students and fun-loving Koreans in New Mexico!

#### SCHEDULE (choose one)

**Thursday Class**  
January 25 - May 3  
6:00 pm - 8:00 pm

**Friday Class**  
January 26 - May 4  
5:00 pm - 7:00 pm

**Saturday Class**  
January 27 - May 5  
9:15 am - 11:15 am

**Children (4+)**  
January 27 - May 5  
9:15 am - 12:15 am

NO CLASSES on the week of March 18th

#### 2018 spring NM Korean Language School

The Korean Language School in New Mexico is offering Korean class for both beginning and advanced Korean language students. If you are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join us! You will learn how to communicate in Korean and at the same time learn about Korean culture.

**Enrolling:** Adult English speakers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language & culture (8th grade to Adults)

**Subjects:** Basic Korean grammar and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Tuition:** \$150 (materials may be extra)  
10% early registration discount available until December 2nd. Early registration requires a non-refundable deposit of \$20 that goes toward the tuition fee.

**Location:**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Any Questions?

NMKoreanlanguage@gmail.com

505-506-6936

www.ksanm.com/home/kschool

## 은혜의 강물따라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교한다면 찬양은 우리 몸의 맥(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출 수 없는 맥박에 비유하는 우리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호흡은 스스로 참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으나 맥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뛰고, 신체 리듬에 따라 아주 여러게 부터(pp), 때로는 아주 세게(ff), 조금 느리게 뛰다가 원래의 뛰기로 돌아가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신체균형에 따라 거짓 없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맥과 같아서 쉽도 없고 멈출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찬양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자청한 성도들의 열정을 담아 연주회를 열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언제나 부족한 모습이라면 현재의 모습을 최선으로 담아 더 늦어지기 전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이태길  
합창단 지휘자



알버커키 지역 교민을 위한  
은혜의 강물따라  
음악회

일시: 2017.12.10(일) 6:00 PM

장소: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Phone: 341-0205(교회) 803-7716(셀)

revtedyi@gmail.com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반주자: 박영신

## 코원소식을 전합니다

박광종  
KOWIN 뉴멕시코 지회장



늦가을의 문턱에서 코원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코원은 한국정부 여성가족부산하에 있고 세계한민족 여성의 권익향상 및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형성된 단체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여성들이 차세대를 육성하고 정보교류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코원 뉴멕시코지회는 2013년 12월에 창립되면서 지역사회에 소외되어 있고 어려움이 처해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타지에서 온 환자가족분들을 위한 저녁봉사가 있었으며 코원가족행사로서 추석에 송편도 빚고 한가위 추석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10월 28일에 있던 김치축제에서는 불우이웃을 위한 김치를 판매함으로써 김치축제에도 참여하고 순이익의 일부를 한인회에 기증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코원회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뜻으로

김치만들기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한인회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이 글을 빌어 전해드립니다.

이번 김치축제에서 코원회원님들과 한국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까지 코원행사인 한국문화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듭만들기, 김치만들기, 서예로 이름써보기, 한복 입어보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치축제에 한인 모두가 어느 단체에 속해있는지를 떠나서 한인회의 일원으로써 한국을 알리고 차세대에게 한국인으로써의 긍지를 느끼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면에서 너무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저희 코원에서는 제 2회 코원글짓기대회를 통해 네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고 코원회원님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14페이지로 계속>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9월-10월)

### 코윈 주최 제2회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

코윈 (KOWIN: 회장 박광중)의 제2회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이 10월 28일에 있었다.

이번 경연대회 수상자들은 유상원, 유지윤, 이민하, 한지수 네 명이며 각각 100불의 장학금을 받았다.

시상식은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에 이어 진행됐으며 박광중 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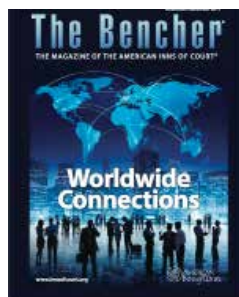
에세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민하 학생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여는 에세이 대회에 참가해서 기뻐다. 한국어, 영어 어느말로 써도 돼서 이번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썼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익혀서 다음 기회엔 한국어로 도전하고 싶다. 단순히 에세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동안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좋은 기회를 주신 코윈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광중 회장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위구분없이 똑같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니 다음 번엔 더 많은 후원과 더불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차세대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뻐다”고 했다 ■

(아리조나타임즈 2017.11.1기사 발췌)



### 노영준 변호사의 글, 벤처지 커버 기고문으로 개재



산타페 로펌 Cuddy & McCarthy에 소속된 노영준 변호사가 쓴 “세상은 넓지만 이젠 손바닥 안에”(The World is Wide, But Within Your Grasp)란 제목의 기고문이 미국 법률협회 (American Inns of Court)에서 발행하는 전국 변호사 잡지인 Benchner의 2017년 11/12월호에 커버 기고문으로 채택됐다.

외국 출신 미국 시민들이 출신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미국 변호사로서 법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점과 지향점을 노 변호사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미국법과 출신 국법의 문제점, 그리고 동일 사건이 양국가의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이에 대한 미국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대응 (외국 변호사협회와 협조)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 해외 변호사들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법률적 윤리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기고문이다.

이 기고문은 웹사이트 [https://home.innsofcourt.org/AIC/AIC\\_For\\_Members/AIC\\_Benchner/The\\_Benchner\\_Recent\\_Articles.aspx](https://home.innsofcourt.org/AIC/AIC_For_Members/AIC_Benchner/The_Benchner_Recent_Articles.aspx) 에 등록될 예정이다. 노변호사는 2015년 미국 법률협회 (American Inns of Court)가 선정한 산드라 데이 오커너 상을 받은 바가 있다. ■

###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9월-10월)

###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 소식

추석을 맞아 지난 10월 8일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에서는 두 분 형제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렸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오신 최경식 야고보 신부님과 최태식 필립보 신부님 두 분 모두 마산교구 소속이시며 형제간이시다. 두 형제신부님의 방문은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교인들은 말하고 있다.

알버커키 공동체는 이번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성당 알버커키 공소로 편입되었고 앞으로 3개월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신부님께서 방문하셔서 미사를 집전하실 계획이다. 다음 대림절 미사는 12월 17일 오후 6시이다. ■



### 한인회 골프대회

총영사배 효도관광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가 10월 14일 UNM South Golf Course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1등은 이재호, 조동훈 씨 2등은 김용환, 차진주 씨 3등은 문상귀, 고길영 씨 장타상에 이재호 씨, 근접상에 문상귀 씨가 수상했다. 행사를 진행한 문상귀 회장은 “6천불 모금을 목표로 행사를 치렀다. 예상했던 결과에 못 미치지만, 곧 예상액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번에는 골프를 즐기는 더 많은 교민이 참여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순회 영사업무

뉴멕시코 한인회관에서 9월 26일(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했다.

업무는 윤재수 영사(순회영사 및 재외선거 담당), 권용석 행정관, 변영희 행정관이 담당했다.

이번 순회영사업무는 여권 관련 10건, 공증 12건, 병역 1건, 가족관계 증명서 22건, 민원상담 8건으로 전체 53건을 처리했다. ■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9월-10월)

### 댄 루이스 시장 후보 한인들과 간담회 가져

시장 후보에 오른 Dan Lewis 씨와의 간담회가 9월 13일(수) 교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The Garage(Auto Repair Shop)의 대표 조 마이크 씨가 시장의 약력 소개로 시작했다. 마이크 씨는 Dan Lewis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목회자 출신의 사업가이고 그의 부모는 노예석(미네소타 대학교수) 씨를 입양해 입양 형이 한국인이라고 했다. 본인 사업에서도 성공해 앨버커키에서 일자리 창출에 힘쓸 후보이고 목회자로 15년 정도의 경험, 앨버커키의 높은 범죄 순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등 후원할만한 가장 훌륭한 후보라고 소개했다.

시장 후보의 연설은 민명희 부회장이 통역했다. 후보는 “한인들과 함께해서 반갑고 함께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여기에서 20년 살았다. 앞으로 이끌어갈 앨버커키에서 한인들과 함께하면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기조연설을 했다.

Dan 후보는 9월 17일 감리교회에도 방문해 친교 시간에 조마이크 장로의 통역으로 인사했다. ■

〈글: 아리조나 타임즈에서 요약 2017.9.20〉



### 어버이회 야유회

뉴멕시코주 한인회 어버이회에서는 9월 20일(수) 오전 9시 한인회관에서 모여 Fenton Lake State Park로 야유회를 떠났다. 문상귀 회장과 김진욱 부회장이 두 대의 밴으로 어버이들을 모셨다. 어버이들은 호수를 가볍게 걸으며 한바퀴 도는 등 자연을 만끽했다. ■



### 무료치과진료

뉴멕시코 주에서 가장 큰 자선행사 New Mexico Mission of Mercy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앨버커키 컨벤션센터 (Albuquerque 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다.

민명희 부회장의 소개와 인솔로 9월 23일(토)에 한인회원 4명이 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민명희 부회장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만족해하셨다. 혜택을 받으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셨으면한다”고 했다.

치과 자원봉사자는 충치 때우기, 발치, 구강청소와 같은 기본치료를 제공했다. 모든 환자는 예방치과교육을 받고 구강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

〈글: 아리조나 타임즈에서 요약 2017.9. 27〉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공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9월-10월)

### 전 상원의원 피트 도미니치 별세

뉴멕시코주를 대표해서 가장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피트 도미니치(Pete V. Domenici) 전 상원의원이 2017년 9월 13일 뉴멕시코 대학 병원에서 85세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장례미사는 Our Lady of Fatima 성당(4020 Lomas Blvd.NE)에서 거행됐다.



도미니치는 6선(1973년-2009년)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뉴멕시코주를 위해 많은 영향력을 연방정부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장직을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맡았고 그 후에는 에너지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미 행정부 정책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는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앞장서온 이민 옹호파로도 알려 졌었다. 피트 도미니치는 1932년 5월 7일 앨버커키에서 이태리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출생했다. 그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식품점 비즈니스를 도우면서 학교를 다녔다. 1954년 UNM을 졸업했고 그후 덴버로 가서 Univ. of Denver에 입학했고 법대 학위를 1958년에 받고 돌아왔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것은 앨버커키 시의원에 1966년에 뽑힌 데서 시작 된다. 1967년 시의원회의장이 되었다. 1972년 뉴멕시코 상원위원회에 당선되었고 그후 연속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뉴멕시코주 역사상 공화당 위원으로는 가장 긴 임기를 지낸 상원의원이 된 것이다. 2008년에 건강문제로 상원위원직을 마치고 은퇴했다. ■

### 김재순 여사 소천

김재순 여사(Che Sun Kim King)가 향년 79세로 9월 4일 소천했다. 김 여사는 1973년에 앨버커키로 이주 45년 간 뉴멕시코에서 지냈다. 1984년에 뉴멕시코 주지사로 세 번의 임기를 지낸 Bruce King과 형제인 Sam King과 결혼 모리아리에서 여행과 농장일로 여생을 보냈다.



### 뉴멕시코 한인회 전 부회장 김기동 씨 장례예배

고 김기동 성도의 장례식이 9월15일(금) 오후 6시에 French Mortuary (10500 Lomas Blvd)에서 있었다.

고인은 9월 12일 오후 6시27분에 가족과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며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했다.



고 김기동 성도는 향년 53세로 유족으로는 부인 함은경 집사와 아들 김정환, 딸 김규리, 한국의 부모, 형제를 두었다.

고 김기동 성도는 테네시 대학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멕시코주 환경국에서 근무해 왔다. 김두남 전 한인회장을 도와 뉴멕시코 한인회 전 부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앨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김기천 목사가 집례한 장례예배는 이명길 목사의 대표 기도, 이태길 목사가 지휘하는 연합 감리교회 성가대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김기천 목사의 요한복음 11장 25-26을 본문으로 한 설교 '네가 믿느냐?', 추모 사진 관람, 한인회 문상귀 회장의 고인 약력 소개, 추모사, 김기천 목사의 영혼 위탁 기도, 광고, 이석종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김기천 목사는 "고 김기동 성도는 죽음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 이 장례 예배를 통해 그는 두 가지 즉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고 설교했다.

추모사에서 한국에서 온 고인의 동생이 형에 대한 어릴적부터의 기억을 나누며 추모객들과 함께 눈물을 적셨다. 동생은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분이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가족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교회 친교실에서 나눴다.

추모 사진이 In Memory of Gi Dong Kim 란 제목으로 YouTube에 올려져 있다. 아래 링크에서 볼수있다.

[www.youtube.com/watch?v=o\\_72hBNQ3FI](http://www.youtube.com/watch?v=o_72hBNQ3FI) ■

(참조:아리조나타임즈 2017.9.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림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http://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mailto:sangsoonc@gmail.com)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광고

### 이천시 명예시민으로 임경애, 조규자 씨 선정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10월 26일 임경애, 조규자, 김완희 재미교포 3명을 명예 이천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패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로스 알라모스의 임경애 씨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던 조규자 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장학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완희 씨가 명예시민이 되었다.

이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이천시 자매결연 도시인 뉴멕시코 산타페시와의 우호친선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 이천시 홍보에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되어 이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김두남 전 한인회장에 이어 뉴멕시코에서 3명의 이천시 명예시민으로의 선정이다. ■



사진: (왼쪽부터) 김완희, 조규자, 조병돈, 임경애

### 한국학교 교사 포토샵 연수

한국학교는 9월 30일(토) 한국학교수업이 끝난 후 이경화 장로를 강사로 초빙해 포토샵 강의를 들었다. 포토샵은 이전부터 교사들의 수업 자료 준비, 광고지, 카드제작 등에 필요한 내용이었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이경화 장로는 Color Image에 대한 설명과 Adobe 포토샵 소프트웨어 소개, 사진 수정, 색깔 균형, 밝기 조정, 색상대비 조정, 리터치와 힐링 브러시를 통한 부분 수정, 전단지 만들기에 필요한 작업에 대해 시연했다. 교사들은 순서에 따라 개인 랩탑을 통해 직접 작업을 해보았다. 혼자서 배울 수 있는 유튜브의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를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



산타페 한인장로교회는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두 가지 행사를 갖는다. 먼저 산타페 지역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증진시킬 신앙사경회 이다 : 일시는 11월 1일(수)부터 5일(주일)까지이며, 평일은 저녁 6시, 주일은 오전 11:30이다. 강사는 LA 한길교회 노진준목사님과 올리브장로교회 강신형목사님을 모셨다.

두번째로 새로운 선교방안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미셔널 처치)'에 대한 강의를 12월 10일(주일) 오전 11:30, 오후 1:00에 풀러신학대학교 선교학과 교수이신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갖는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문의 : 김석훈 목사 [626-272-1042](tel:626-272-1042) ■

### 침례교 한.히스패닉 합동예배



한미침례교회(윤성열 목사)는 히스패닉 교회인 Iglesia Cristina La Senda Antigua(Pastor R. Carreon)와 함께 2018년 1월 신년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설교: 윤성열 목사(스페인어로 설교)  
일시: 2018년 1월 7일, 오전 11시  
장소: 한미침례교회(3315 Tower Rd.)  
(예배 후 만찬) ■

### 현용규 목사 내외 이주 송별회

현용규 목사와 현명희 사모가 9월 13일 LA로 이사하게 되면서 함께 신앙 생활했던 감리교회 교우들이 9월 3일 오후 5시 감리교회 친교실에서 송별회를 마련했다. 현 목사는 지난 13년동안 성가대에서 테너와 베이스로, 속회인도자로, 때로 예배설교자로 교회를 섬겨왔다. 한인회 어버이회 회원으로서 이웃을 돕는 봉사도 해 오셨다. 현명희 사모는 "오래도록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게 돼서 아쉽다. 멀리 떨어져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고 했다.





수필



## 세기의 장관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그날 아침의 날씨는 이곳 앨버커키에서는 보기 드물게 흐렸다. 시커먼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은데다가 가끔 빗방울까지 한둘 떨어지고 있었다. 여름이 다 가고 있는데, 열흘 전엔가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도 했으니 지구 온난화가 빗는 이상한 날씨로 치부하는 수밖에...

한 십 년 살아본 가늠으로 비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아무 준비도 없이 집을 나서 사십 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까지 걸어갔다. 벌써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세울 곳을 찾지 못한 자동차들이 입구를 빠져 나오고 있었다. 줄서서 기다리다가, 반드시 눈에 끼고 해를 바라보라고 나눠주는 특수 안경을 받아 들고 사람들 틈에 끼었다. 일식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 꽃을 피우는 2017년 8월 21일 아침이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 갑자기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 버리는 개기 일식은 지구 표면의 어딘가에서 18개월만에 한 번씩 나타난다. 그러나 흔히 지구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위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의 일식은 그래서 유다르다. 매스컴에서는 그 장관을 놓치지 말고 보라고, 지도에다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낱낱이 적은 특집을 수일 전부터 내보내고 있었다. 관측 기구를 갖추어 두고 시민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공원이며, 일식 안경을 무료로 나눠주는 도서관 등 여러 곳을 알려 주었다.

태평양에서 뜬 해가 오리건 주 링컨 해변에 닿은 뒤, 시속 2,735킬로미터로 달려 동남쪽 사우스캐럴라이나 주 찰스턴을 지나 대서양으로 빠진다. 약 90분 동안 12개 주를 거치는데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 캄캄해지는 지역의 폭이 2백 8십리이고, 한 장소에서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30초 정도이다. 그 회랑 지대에서 사는 미국인들의 수는 천이백만이고, 팔천팔백만은 320킬로미터 이내에서 살며, 일억오천만은 차로 하루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산다. 그 장관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고속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곳에서 보다 조금 더 긴 2분 40초 동안 일식을 볼 수 있다는 캔터키 주의 흄킨즈빌은 삼만이천 명이 사는 곳인데, 열여섯 개의 나라에서 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인구 육천오백인 오리건 주의 마드라스에는 십오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도시의 주변에 있는 하이웨이의 신호등은 그 시간에 맞춰 모두 파란 불이 켜져 있을 것이고, 큰 길로 연결되는 작은 길들은 통행이 차단될 것이라고 한다.

해의 직경은 달의 직경의 약 400배여서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비하여 해까지의 거리가 400배가 되기 때문에 표면의 크기가 같아 일식을 만든다. 일식이나 월식에 대한 시각은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초자연적인 힘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물체를 먹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옛날 사람들은 불길한 재앙을 당하지 않나 걱정했다. 인디언들은 일식이나 월식이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불개들이 해와 달을 물기 때문에 대낮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고 밤에 달이 이지러졌다가 되살아난다는 우리의 전래 동화는, 여기 사람들도 흔히 인용한다.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1991년에 개기 일식을 처음 본 뒤로, 오스트리아 가봉 노르웨이 등 세계를 누비면서 무려 일곱 번을 보았다는 마이클 자일러는 자칭 '일식 추적자'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일식을 보고 있으면 마치 외계의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와이오밍 주 캐스퍼는 해발 1.5킬로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식을 관찰하기에 이례적으로 좋은 곳이다. 무려 536,000대의 자동차가 몰려들어 사람의 수까지는 일일이 셀 수 없었지만, 뉴멕시코 주에서 사는 그 일식 추적자도 캐스퍼에 갈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번의 일식은 우주, 하늘 그리고 땅에서 관측되었다. NASA는 달 정찰 위성과 열하나의 우주선을 이용하면서, 저명한 인사들의 전용기 3대와 50개의 풍선 관측기를 띄워 자료를 수집했다. 뉴멕시코 주립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도 그 풍선 관측 팀에 들어, 직경 2.43미터의 헬륨 풍선에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 30킬로미터 높이까지 띄워 관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일식을 생중계하는데 일조했다. 지상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망원경, 카메라로 일식을 촬영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는가 하면, 곳곳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일식 때 일어나는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야생 동물의 소리를 수집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 자연을 관찰한 것이다.

나는 해의 73퍼센트까지 달에 가려진다는 곳에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걷히기 시작하던 구름이 우리가 서서 기다리던 동북쪽까지 말끔하게 걷혀 주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터지는 탄성 속에서 초승달 크기만큼 가려진 해를 한참이나 보았다. 사막과 흡사한 앨버커키 아카데미의 소로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시로 특수 안경을 눈에 가져다 대고 세기의 장관을 즐겼다. 자연은 어느 때나 내가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

## 종교의 두 기둥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본래 종교에는 음악과 경전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지요. 종교의 음악은 인간의 감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경전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이지요. 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발전시켰고 경전은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 음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해왔고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해 왔습니다. 인류 초기에 경험과 이해는 주로 상상이라는 그림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형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완전한 것을 상상하면서 살게 되어 있지요.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까지는 상상력이란 원초적인 힘이 작용하지요. 처음엔 남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상상이 형상화되면서 그 형상을 실제 사람에게 적용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상한다는 것은 서로 그리워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지요. 문제는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동안 상상해왔던 즉 기대해왔던 모습과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기대감 즉 상상력이 죽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곧 다른 상대를 골라 자신의 기대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마치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무너지면 그 기대감은 자기 자녀들에게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상상력, 즉 완전한 것에 대한 기대감은 옮겨갈 뿐이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방송 문화는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상상력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을 연예인이라고 하지요. 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방송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광고에 비친 사진들이 그러한 한 예이지요. 그 외에도 인간 내면에는 원초적으로 불의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 있지요. 방송인들은 드라마를 만들면

서 이런 원초적인 본성을 화면 속에 투사시켜놓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화면에 드러난 장면들을 보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내면이 이미 그런 심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현대인들은 화면 안에 드러나는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송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면에 익숙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능동적으로 상상하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수동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미 표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애를 쓰며 상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옛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부르면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의 세계로 인도한 것이지요. 문제는 현대 문화가 상상을 하도록 즉 묵상을 하도록 강조하는 문화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상상된 것 즉 만들어진 것을 기대하는 문화라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누군가가 인간 내면에 있는 원초적인 갈등을 투사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같은 기대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 역시 모델과 같은 말끔한 목회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배 또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어색한 점이나 실수가 전혀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예배를 기대하지요. 그런 완전한 예배를 만들려면 방송국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예배는 많은 다수를 위한 예배에서는 가능하지만 소수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시대적 경향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는 능동적인 찬양과 주체적인 말씀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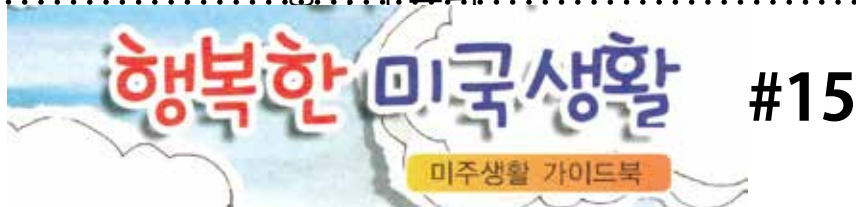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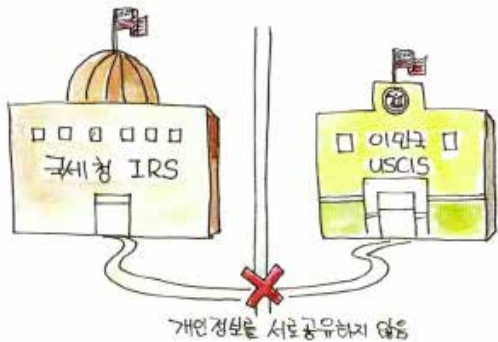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7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 3-1 서류미비자의 세금번호(ITIN)



윤춘향: 사실은 제가 서류 미비자이고 그동안 일을 했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인에게 듣기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소셜 번호도 아직 없는데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제 신상 정보가 이미국에 보고 되지는 않을까요?

회계사: 서류 미비자들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소셜 번호가 없어도 국세청 (IRS)에 개인 세금 번호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신 후, 번호가 나오면 박몽룡씨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면 공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시기도 하시고요.

윤춘향: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민국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요?

회계사: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은 이민국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살고 있고, 국세청과 정부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세금을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이민 문제와 결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음에 박몽룡씨와 함께 오셔서 세금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윤춘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 세금 보고할때 저도 같이 하도록 하지요.

### 전문가의 한마디

#### 개인 세금 번호 (ITIN)

개인 세금 번호 (ITIN)를 발급 받으면, 비록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소득 관련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ITIN은 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숫자는 9로 시작됩니다. 예(900-00-0000)

#### • 어떻게 ITIN이 사용됩니까?

윤춘향은 몇 해 전 박몽룡과 재혼을 했었다. 춘향은 한국에서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을 했다. 언니의 소개로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네일샵에 취직을 하였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최근에는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의 소개로 박몽룡을 만났으며, 박몽룡 또한 몇 해 전 상처를 하고 잡화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기에,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둘은 쉽게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만났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춘향의 입장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박몽룡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기 때문에 섣뚱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많은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가 그렇듯, 고용주는 봉급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았고, 춘향에게 현금으로 봉급을 지급하였다. 결혼을 하고난 후 춘향은 지인으로 부터 시민권자인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세금보고 시 본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그동안 서류 미비자로서 취업을 한 것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년 박몽룡의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공인 회계사를 찾았다.

회계사: 안녕하세요? 박몽룡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윤춘향: 저희 남편이 이미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세금 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것이 있어요.

회계사: 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1. 세금 보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세금 보고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자녀 및 기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ITIN을 가지고 자녀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ITIN을 사용해서 사회 보장국에 임금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ITIN을 가지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고 나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일부 주에서는 ITIN을 신분증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의 안전국 (Department of Safety)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5. 근로 소득세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및 기타 공공혜택 (Food Stamps, 연금, 기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7. 이민에 관련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8. ITIN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공동 세금보고 (Joint Tax Return)를 할 수 있습니다.

9. 자녀 및 기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 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부양 가족에는 자녀, 의붓 자녀, 법적으로 인정 받은 수양자녀, 입양자녀, 손자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숙모, 삼촌, 조카 혹은 당신의 가족으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관계가 부양 가족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문의하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권자, 외국인 거주자 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멕시코 및 캐나다 거주하는 자는 부양 가족에 해당되기 위해서 미국 내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일년 내의 일정기간을 부양가족으로서 미국 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 살았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에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같이 하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부양가족에게 재정적으로 50%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세 미만이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 • 어떻게 ITIN을 신청합니까?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 및 체류 상태 및 신분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14살 미만 신청자의 부모이거나 법적인 보호자일 경우에 FORM-7을 대신 작성한 후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ITIN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A. 체류 상태: 여권, 출생증명서, 외국 운전면허증, 혹은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증명서를 통해 체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B. 신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원본 혹은 공증기관을 통해 공증을 받은 서류에 한합니다.

### • 언제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ITIN을 받아야 합니다. ■

<코원 소식 5페이지에서 계속>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그분들의 수십대를 걸친 전통, 문화, 추억들을 집어보는 기회, 세대간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기회, 한국인의 이상과 금지, 뿌리를 되새기는 면에서 이 김치축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멕시코에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모든이가 한 맘과 한뜻으로 축하하는 자리여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김치축제를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물심양면 힘써주신 문상귀회장님과 임원진들, 한인 한분 한분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코원이 그 일부분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수필

## 주를 앙모 하는자 #3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사도행전 11 : 24 절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제가 택한 세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 인물로 에스더를 소개했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선 바나바의 놀라운 인품은 제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부터 다시 한번 꺼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가 실망하는 일이 있거나 소외당한다고 느껴질 때 또는 몸이 안 좋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줄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어디 몸이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음식 한 가지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권사님도 힘내세요”. 저희들은 이런 대화로 사랑을 나누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되었을 때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몇 시간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설득시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일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 기독교인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잘 알았고 또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진실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과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행된 모든 일을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바울이 잔꾀를 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믿고 전한 강한 권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수익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릴 만큼 선두에 서서 이방인 전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멋도 모르고 바울이 시작하는 제일 차 선교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생각 했던 것 보다 너무 힘들었는지 아무 변명도 없이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이런 행위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는 좀 다르게 마가를 대했습니다. 친척관계 여서가 아니고 마가의 숨어 있는 능력을 알았기때문에 second chance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 6년 후 AD 50년경에 바울이 계획한 제2차 선교여행에 마가를 다시 동행시키자고 권했지만 바울은 완강하게 거절했고 바울은 실라만 데리고 제 1차 선교지를 방문하였고 또 그 밖에 여러 고장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떤 성경 전문가는 이렇게 갈라져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업이 더 확장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마가가 화해가 되었을가 궁금합니다. 바울은

마가가 정말로 진실한 동역자이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라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 골로새서 4:10절 )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일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간결하게 썼고 그 후에 많은 이방인에게도 큰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사촌이기때문에 마가의 경솔한 행위를 너그럽게 대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복잡한 현대 사회에도 그저 칼날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내려 치는 것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 빌레몬서를 읽으셨을줄 압니다. 이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던 바울이 아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빌레몬을 설득하였는지 참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옥중의 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이 되어가는 중에 노예제도가 본격화 되었고 로마시에는 백만 정도 되는 인구중 거의 3분의 1, 30만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패국에서 잡은 귀족들이나 포로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되었거나 또는 돈으로 주고 팔아 노예가 되는경우도 있었는데 노예는 그 주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골로새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는데 그는 큰 부자였고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으며 골로새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이방전도의 사도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수를 많이 가르쳤고 빌레몬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골로새를 떠나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사는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날수가 있었을까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확률을 보면 백만분의 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되었을때 오네시모는 자기의 과거사를 전부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레몬의 mentor 역할을 했고 아주 친근하게 지냈기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의 청을 꼭 들어주리라고 확신하면서도 아주 공손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다시 바울사도가 한 말을 다시 쓸 필요는 없고 독자들이 다시 읽어

<18페이지로 계속>

## 알버커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9월 28일 늦은 저녁 알버커키 공항에 내리니 아내의 친구인 태자(윤태자)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태자씨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있으라니 40년 전의 기억들이 순서 없이 뇌리에 떠올랐다. 이 얼마만인가.

1983년 공부를 마치고 떠난지 35년 만에 알버커키를 방문했다. 막연하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아들, 며느리의 강권 때문이었다. 미국을 방문한다면 알버커키와 라스베가스 두 곳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알버커키는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고 라스베가스는 다정한 친구 전준택 박사가 사는 곳이다. 아들 내외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불쑥 여행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사양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추석 연휴 이외에는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여행을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나, 아들 부부 네 식구의 알버커키 행이 이루어졌다.

알버커키는 사실상 내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알리지 때문에 공부하는 내내 고생했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었고 성인이 된 이후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오클라호마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1976년 알버커키에 와서 일 년 반 정도 있다가 귀국해서 수도여지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이 때 형수님의 소개로 중학교 선생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가정을 꾸릴 능력도 의사도 없었지만 집안에서는 노총각(32?)을 그냥 놓아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다행히 결혼을 약속하고 두 달 쯤 후에 아무런 언고도 없는 대학의 전임강사가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대학교수 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아내는 자신이 행운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맞는 것 같다. 겨우 두 학기 지나서 그만 두려고 하니 원로 교수님들이 극구 말렸다. 박사학위는 교수가 되려고 받는 것인데 이미 교수가 되었으니 논문이야 천천히 써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즈음의 수도사대는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젊은 객기에 미련 없이 사표를 내던지고 아내와 함께 알버커키로 돌아왔다.

살 곳을 구할 때까지 염치 불구하고 이경화 박사님 댁에 신세를 졌다. 이박사님과 사모님은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전후좌우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다.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이박사님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이박사님은 유학생들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다. 아내는

### 정해창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알버커키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다. 김준호 박사님 사모님인 홍수영 선생님이었다. 아내는 영어가 서툴었지만 두 분 덕택에 CVI에 취직해서 그분들 보호 아래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험한 일거나 하며 고생했을 것이다. 유학생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두 분은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소년-소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

UNM에 재직하시다가 포항공대로 가셨던 고 박수문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에는 아내와 함께 포항에 가서 참석했었다. 당시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돌아가신 것을 알버커키에서 들었다.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알버커키에 사는 동안 박황배 박사님과는 형제처럼 지냈다. 동부 어느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1980년 전후에 꽤 많은 한국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해경(연세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와는 지금도 가끔 만나고 있다. 이런 인연으로 김해경교수의 딸아들 결혼식 주례를 섰다.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또 주례를 부탁해 올 것 같다.

이번 방문에 철학과 은사이신 고 Paul Schmidt교수님의 부인 Gail Baker Schmidt교수님을 뵈고 싶었다. 철학과 사무실에





들러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올해 발간한 책 [철학의 종언 그 새로운 시작] 개정판을 슈미트교수님께 헌정했는데 한권 꼭 전해드리려고 했다. 채식주의자이며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단순 소박한 삶을 고집했던 선생님은 내게 은사이자 은인이었다.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학위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호스트 웨밀리 Eddie & Freddie Edwards 부부의 딸인 Faith와 Linda를 만나고 싶었지만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에디와 후레디는 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해주려고 심사위원 교수들 그리고 이박사님을 비롯하여 몇몇 한국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어주었을 정도로 내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었다.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에디가 세상을 뜨면서 연락이 끊겼다. 눈에 띄는 미인이었던 웨이스와 린다도 이제 70 전후일 테니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네 명이나 되는 대부대(?)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한가지게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다니려고 했었다. 그런데 태자씨는 애초부터 우리가 당시 집에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그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고 하루 늦게 도착한 아들 부부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산타페 방문에 나섰다. 배 굶는 아티스트들(starving artists)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산타페는 현대 미국의 대표적 여류화가 중 한사람인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가 인생 후반기를 보낸 곳이기도 하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미술관에 들어가 보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밴달리어 인디언 유적을 보러 갔다. 시차 때문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첫날이라 그런지 모두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 이박사님 내외분, 김박사님 내외분, 태자씨 내외분을 만나서 35년만의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서운해서 김박사님 댁으로 가서 티타임을 가지며 또 이바구를 계속 이어 갔다.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박사님으로부터 교회 건물 세우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둘째 형님이 목사님이지만 나는 70 평생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본 적이 없었다. 목사님이 마치 자애로운 형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를 충분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날은 오래 두고 기억될 것 같다.



오후에 모라박사님 내외분 그리고 브로더 사장님을 함께 만났다. 모라 박사님 내외분과는 정말 흥허물 없이 지냈다. 유학생들 중에서 유독 우리와 가까웠고 늘 살갑게 대해 주셨다. 총각서절

자주 가서 밥을 축내곤 했었다. 이번에 오랜만인데도 바로 엇그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브로더 사장님은 세월을 빗겨가신 듯 몰라보게 젊음을 유지하고 계셨다. 고려정에서 불고기를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났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만 드리고 호텔로 갔는데 오후 내내 잠을 자느라 연락이 되지 않아 잠시 걱정을 했다. 1600미터나 되는 알버커키의 고도, 건조한 날씨, 강한 햇빛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금방 늘어지게 만든다. 여기에 시차도 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후런티어 식당에서 오영여사님 주최로 여러분들과 같이 환송(?) 식사를 했다. 오여사님은 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뵈었을 때도 순수함 그대로였다. 혼자 미국생활을 하시느라 힘도 들었을 텐데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단골 식당이었던 후런티어는 옛날에 비해 훨씬 커졌으나 정겨운 모습은 그대로였다. 몇 십 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난 방문객의 떠나는 순간을 더욱 아쉽도록 만드신 오여사님이 너무 고맙웠다. 알버커키에 체류하는 동안 태자씨는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다. 아무리 아내의 친구라고 하지만 태자씨의 마음 씀씀이는 매번 작은 감동을 주었다. 태자씨의 집은 수도여고 동창들의 미국 센터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한 달씩이나 머물기도 했다고 한다. 태자씨 참 대단하시다.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길에 아코마 푸에블로에 들러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세도나로 향했다. 이박사님으로부터 아코마 푸에블로에 얹힌 인디언들의 슬픈 역사를 듣고 꼭 방문하고 싶었으나 여행 일정은 운전대를 잡은 아들 소관이였다. 세도나, 언제부터 그렇게 유명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기(氣)가 가장 세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내노라하는 기공사들도 이곳에 와서 수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몰로 유명하다는 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반사 빛으로 산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너도나도 셀카를 찍는데 어떤 외국인이 휴대폰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장면에서 한국인이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젊은이가 절벽 난간 바로 아래에서 빠죽 나와 있는 나무에 셀폰을 걸쳐놓으려고 아슬아슬한 시도를 하는데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 해줄까 하는 참에 다행히 스스로 포기했다. 라스베가스에서 총기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TV 뉴스를 보았다. 놀라서 춘택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한참 지나서 걱정 말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는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속수무책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총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쯤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랜드 캐년은 볼 때마다 신비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준다. 지각의 변동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자연에 대해 외경심을 갖도록 신이 특별히 빚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하긴 인간이 자연에 대해 저지르는 온갖 종류의 폐해를 보면 이런 생각은 순진하고 부질없는 것일 게다. 며느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예약한 특별한 식당, Eltovar 호텔의 식당에 갔다. 예약을 했는데도 한참 기다려야 했다. 이 호텔에 숙박하려면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음식은 양이 많은 대신 맛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길 주변에는 볼거리가 많은데 두 군데만 들리기로 했다. 앤틸로프 캐년은 정말 신비스러웠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 이상을 땡벌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척추관 분리증 때문에 오래 서있지 못하는데 저만치에 있던 나이 지긋한 가이드가 고맙게도 의자를 갖다 줘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공수부대 출신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가이드는 동양인 관광객들 속에서도 우리 일행이 한국인인 것을 금방 알아챘던 것 같다. 이 캐년은 어떤 인디언 할머니의 개인 소유라는데 인디언 가이드들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로 들어가 둘러보았다. 마치 캐년 전체를 예리한 조각칼로 다듬어 놓은 것 같았다. 여기야말로 신이 놀러왔다가 심심해서 만들어 놓고 간 작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진작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캐넵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호텔에 들었는데 방도 좋았지만 호텔 식당의 중국음식은 너무 훌륭해서 뜻밖이었다. 이튿날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갔다. 그랜드 캐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절경이라면 자이언 캐년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절경이다. 그런데 여행이 일주일 쯤 되다 보니 다들 힘이 들어 피곤해 보였다. 특히 아들은 계속 혼자 운전을 하고 며느리는 옆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시부모를 모시고 다니니 꽤나 힘들었을 것이다. 이날은 일찍 호텔에 가서 쉬었다.

10월 6일 오전에 라스베가스 외곽에 있는 전춘택 박사 집에 도착했다. 전박사와 그의 처 문신영 여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집이 엄청 컸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작은 축에 속한다고 했다. 둘이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한 무리가 들이닥친 것이다. 아들 내외는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호텔로 갔다. 춘택 부부는 이 날부터 8일 자정 비행기로 떠날 때까지 내내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했다. 아무리 친구기간이라도 너무 폐를 끼친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가 프로비던스와 디트로이트에 살 때도 가서 개간 적이 있다. 내가 바다가제를 처음 먹어본 것도 전박사의 집에서였다.

춘택은 나와 고등학교 일학년 때 짝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는 나의 첫 번째 친구나 다름없다. 나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전학을 밥 먹듯 했다. 중학교만 해도 시골에서 네 군데나 다녔다. 그러니 친구가 있을 리 없었다. 다행히 모두가 선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지극히 내성적인데다 타고 출신이어서 모든 게 서먹서먹했는데 본교 출신인 춘택은 텃새도 부리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 주어 친해졌다. 그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장자(長者)의 품모가 있었다. 그는 GM의 부사장과 자회사 델파이 아시아-호주 사장을 근 10년 하다가 은퇴했다. 라스베가스에 정착한 이유는 따듯하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했다. 이 친구 요즈음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는데 참 대단한 열정이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른 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문여사는 소규모 자선단체를 이끌며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사람들 모이면 대체로 한번쯤은 한국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다. 문여사는 그 나이 또래의 여느 한국 여자들과 달리 합리적이고 예리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문여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라스베가스 인근에 있는 후버댐을 보고 그 규모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1930년대에 이미 이런 댐을 건설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라스베가스는 한마디로 굉장한 도시이다. 최악의 도시(Sin City)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방문객들의 지갑을 가볍게 하지만 각종 조형물이나 쇼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이 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문객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해 주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이 도시의 존재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번 여행은 아마도 나의 마지막 미국 방문이 될 것 같다. 체력도 문제지만 이제 고마운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애뜻한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보다 좋을 듯 싶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행은 오랫동안 내게 특별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

### 주를 양모 하는 자 <13페이지에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므로 골로새로 돌아가는 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두기고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과연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에 순응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 편지가 빌레몬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편지를 없앴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신약성경에 그편지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후에 오네시모는 예배소 지방의 감독(Bishop)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없었던 마가와 노예 생활을 했던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고 노예로 일을 했던 오네시모를 감독까지 되게끔 권면해 주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주를 양모하는 진실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회고하며 지금도 찾으시는 주를 양모 하는 자들이 우리의 세대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 ■



# 에베소서 제6장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제 6 장 1-9, 주님께 하듯 서로 존경하시오.

“1 여러분 자녀들이여 주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붙은 첫 계명입니다. 3 ‘그것은 네가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함이니라’(출 20:12, 신 5:16)라고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하게 하지마시오. 주의 지도와 권면가운데서 자녀를 교육하시오. 5 여러분 노예들이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곧은 마음으로 이 땅의 주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복종하시오. 6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부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섬기시오. 7 사람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요, 주께 바친다는 심정으로 섬기시오. 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누구나 주께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섬기시오. 9 그리고 여러분 주인들이여 노예들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이 다루시오. 저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에게는 각 사람의 겉모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위협하지 마시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일 4:16 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물이고 공기이고 양식이며 힘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흥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사랑에 속아 울분을 토하며 죽어 갑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참사랑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한다면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나아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 역시 바르고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시며 만나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 본문은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받아들이거나 거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겉모양이, 사람의 겉모양이 반항적이거나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죄인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대하여, 직원을 대하여 또는 이웃이나 동료를 대하여 분노하거나 위협한 일이 있다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일이므로 반드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 3:12-15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13 누가 너희를 헐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히 12:13 절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본 에베소서 4 장 후반부 역시 이를 강조하였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고아와 과부등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잠언 14:21 절“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특히 약하고 빈곤한 자와의 관계를 보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한 악령입니다. 사랑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고,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신자 개인의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적대관계로 변질시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6 장 후반부에 마귀를 어떻게 대항하고 투쟁하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6: 10-24,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시오

“10 여러분은 주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힘을 얻으시오 11 악마의 전략에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 몸을 무장하시오 12 우리는 혈육을 가진 인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의 지배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대적들이 올 때에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고도 자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14 그런즉 용감히 맞서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화의 복음들을 떠날 준비로 신을 신고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시오. 그것은 악한자들이 쓰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시오 18 기도와 간구로 어느때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오

19 내게 말씀을 주시므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오 20 그 일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으나 당연히 할 말을 더욱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21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나의 현재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22 나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를 보냅니다.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제에게 평화를 주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기를 빕니다. 24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변함없기를 빕니다.”

몸단장 끝낸 신부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양의 결혼식에 천군 천사들의 기쁨의 환호성을 들으며 입장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이 결혼식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 이 결혼식에 초대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남아 사단과 맞서 싸우는 모든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주셨습니다. 그 갑옷은 7개의 영적 부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성경을 통독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둘째는 거짓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얻은 하나님의 의 즉 정의의 흉배(호심경)입니다. 셋째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신을 수 있는 평화의 신입니다. 넷째는 어떤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방패입니다. 다섯째는 누가 뭐래도 자신의 구원은 확실하고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다고 확신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째는 만나처럼 매일 매일 내려 주시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찢러 물리치게 하시는 그 날의 생명의 말씀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무시로 성령안에서 깨어 자신과 모든 성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드리는 겹세마네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전신 갑주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단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16:33 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 2:15 절에서 “정사와 권세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공개 정죄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마 16:18).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모든 사람들에게겐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라도 세상에서는 살기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힘입니다. 마귀와의 적대관계 속에서 살아 남게하는 힘이고, 사단과의 투쟁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갑옷을 또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3-24절의 바울의 축도가 여러 독자에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연말 여행, 저렴한 비행요금 찾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 방문차 비행기로 여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언제 항공권을 예약하고 출발 날짜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할때가 많다. 그에 대한 답을 뉴욕 타임스지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여행을 계획한다면 10월이 가장 적절한 예약 기간이다. 최저 가격을 원한다면 할로윈 날을 꼽을 수 있다. 호퍼(Hopper)의 데이터사이언티스트인 패트릭 서리씨의 말을 인용하면 항공요금은 할로윈이 지나면서 약 2주 동안 매일 \$10씩 올라가서 추수감사절에 이른다라고 한다.

만일 여러분이 성탄절 전후에 여행한다면 예약 최적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최적 시기는 10월 첫주이다). 허퍼에서 장기간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성탄절 여행 출발 날짜에서 8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날짜이고 예상 티켓 가격은 매일 \$4씩 추수감사절까지 상승하고 그다음은 매일 \$7씩 두 주간 오른다고 한다.

### 출발날짜에 따른 영향?

추수감사절의 경우 가장 항공요금이 비싼 날은 추수감사절 날 전 수요일이다. 그러나 그 주일의 월요일 또는 목요일을 잡는다면 대략 \$50을 절약할 수 있다. 귀향하는 날에 따른 가격 차이도 크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첫 일요일은 가장 요금이 비싼 날이다. 그러나 귀향길 출발 날짜를 11월29일 수요일로 잡으면 약 \$160의 절약을 할 것이라고 서리 씨는 말한다.

올해 성탄절 기간 여행 날짜로 가장 저렴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한 날짜는 12월16일 토요일과 12월19일 화요일로 꼽았고 가장 비싼 요금은 되는 날로는 12월 22일 금요일로 보고 있다.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를 약 \$110으로 본다고 한다. 귀향길 여행날짜 중 가장 붐비는 날은 1월1일이며 1월4일 목요일을 귀향길 여행 날짜로 잡으면 약 \$100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 항공요금 절약 도우미?

항공요금의 오름과 내림의 변동시장 상황에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변동 상황을 알려주는 E-Mail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Hopper, Skyscanner, Google Flights 같은 항공요금추적 보고를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는 것이다.

더 상세한 점은 아래의 뉴욕타임스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nytimes.com/travel)

(글:편집부 참고자료출처:The New York Times, Here to Help, Sun. Oct. 22, 2017)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a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Sushi Ham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5:00-8:00 P.M. Daily

식당비즈니스를 505-293-6055  
 매매합니다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Corner of Eubank and Candelaria)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b>알버커키 Albuquerque</b>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Kelly Liquors #14</b>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b>	<b>A-1 한식 Cafe</b>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김미경 Mikyong Kim</b>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b>A-1 Oriental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9021)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부동산 Realtors</b>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Arirang Oriental Marke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Salon 47(황경희 Kay Latham)</b>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b>치과 Dental Clinic</b>
<b>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b>	<b>건축/페인트 Painting</b>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세탁소 Dry Cleaners</b>	<b>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b> 11901 Menaul NE (505-271-1056)	<b>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b>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공인회계사 CPA</b>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b>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태권도 TaeKwonDo</b>
<b>Asian Pear</b>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Dynamic taekwondo academy</b> 5850 Eubank Blvd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b>
<b>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한의원 Acupuncture</b>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Kelly Liquors #2</b> 5850 Eubank NE (505)291-9914	<b>의류 Clothes</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Dr. Chang: (장상순)</b>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b>Jasmine Thai &amp; Sushi House</b>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b>Kelly Liquors #5</b> 6124 4th St NW (505) 828-1133	<b>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b>	<b>교회 Church</b>	<b>Dr. James D Park: (박달규)</b>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Kelly Liquors #7</b>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Dot Clothing Co:</b>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b>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b>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b>화랑 Gallery</b>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b>Kelly Liquors #8</b>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b>Dot Clothing Co</b>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b>갈릴리장로교회</b>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b>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b>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Kelly Liquors #9</b> 1903 Coors SW (505) 873-4477	<b>Fashion USA</b>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회원/원예 Nursery</b>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b>Kelly Liquors #10</b> 4312 Coors SW (505) 877-2777	<b>GEM X Imports</b>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Osuna Nursery: 501 Osuna Rd</b>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 교회 Church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

##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626)272-1042

## 척추교정 Chiropractor

지압사 Joseph Cho  
3600 Rodeo lane Suite D-2  
Santa fe NM87507  
712-259-2194

## 클로비스 Clovis

## 교회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화밍톤 Farmington

##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7년 11/12월호

발행일: 2017.11.4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Merry  
Christmas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김영신 부동산이 기원합니다.



HELLO FROM  
ALBUQUERQUE  
NEW MEXICO

- 편안하고 아늑하면서 가격 또한 적절한 집
-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실 분



김영신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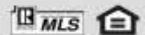
Associate Broker / REALTOR

Cell: (505)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 Office: (505)888-1700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성심을 다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 김

Grace Kim  
김 천

Associate Broker/Realtor



주택

토지

사업체

R1 REALTYONE  
OF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전화: c 206.765.0836 o 505.883.9400

Email: kgrace7@msn.com

9674-3 Eagle Ranch Rd NW Albuquerque, NM87114

Website: www.realty1newmexico.com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